



한국형발사체 2350억 투입... 나로우주센터 집중 지원

미래부, 과학기술 분야 R&D 종합시행계획 심의
올해 총 2조1천억... 27일 전남대서 호남권 설명회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지난해보다 10% 많은 총 2조100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나로우주센터 등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 2350억원 등을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1227억원)보다 91.5% 늘어난 액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한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 R&D 총 예산인 5조678억원 중 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6개 사업에 관한 것이다. 미래부는 계획이 확정되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에서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개인·집단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에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6967억원이, 바이오·의료·첨단융합기술 등 원천기술개발사업에는 4.8% 늘어난 533억원이 투입된다.

나로우주센터의 한국형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등 우주기술개발사업 예산은 31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4% 증가했다. 나로우주센터에는 연소기 연소시험 설비, 터보펌프 실험실 시험 설비, 3단엔진 연소시험 설비, 엔진 고공연소시험 설비, 추진기관시스템 시험 설비 등에 집중 투입된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2920억원(9.3% ↑),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에 2369억원(6.6% ↑), 과학기술국제화 사업에 541억원(5.2% ↑)을 투자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창의적 지식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이

고 독창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사업 중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인 '중견층 연구자'에 지난해보다 268억원 많은 3488억원을 지원, 올해 신규 과제 930여개를 추진한다. 또 젊은 연구자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신진연구'를 강화하고, 리더연구와 국제공동연구에 해외 우수연구자를 평가자로 활용하는 '글로벌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원천기술 지원과 관련, BT에는 2186억원을 투자해 신약후보물질 도출, 줄기세포 이용 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지원한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에 141억원을 투입해 '한국인 표준 뇌지도'를 구축, 2017년부터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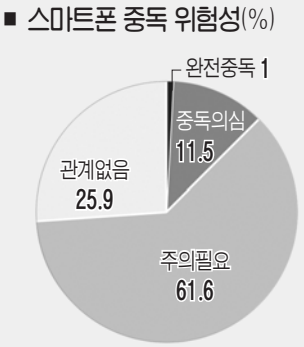
나노기술(NT)에는 528억원, 환경기술(ET)에는 69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ET

분야에서 현재 1t당 60~100달러 수준인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30달러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총 8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에 선정된 과제인 암치료·비만·유해화학물질유출에 대한 기술개발 결과가 현장에 시범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식수원 복조와 미세먼지 등 신규 과제도 지원한다.

미래부는 이들 사업의 성과를 산업계가 활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과활용 사업화 지원 예산을 지난해 66억원에서 올해 17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또 출연연과 소프트웨어뱅크 등이 보유한 기술정보 2000여건을 통합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하고, 국가간 협력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직장인 10명 중 7명
"나는 스마트폰 중독"
하루 3시간 습관적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자신이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 48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질문한 결과, 61.6%가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중독의심'은 11.5%, '완전 중독'은 1%였고, '전혀 관계없는 수준'은 25.9%였다.

실제 한국과학기술개발원의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법'으로 진단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호'가 30.8%, '스마트폰 중독의심' 19.5%, '해당 없음' 7.4%, '스마트폰 중독' 2.5%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81.7%는 평소 뚜렷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구부정한 자세'(32.7%, 복수응답), '시력감퇴'(32.5%), '어깨 결림'(32.2%), '수면부족, 불면증'(28.8%), '기억력 감퇴'(28.1%), '집중력 감소'(25.7%), '손가락 결림'(18.4%), '조급증'(14.8%), '예민해진 성격'(14%) 등을 꼽았다.

업무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직장생활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 '업무 집중력이 떨어졌다'(51%, 복수응답), '근무 자세 등이 나빠졌다'(25.9%), '수시로 업무확인 등 업무시간이 늘어났다'(19.9%), '인간관계에 소홀해졌다'(12.9%)고 고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요금할인 약속 지켜라” 이용자가 KT 이겼다

충남 홍성의 유씨씨는 지난해 4월 24일 월 2만2500원인 KT의 3G(세대) 데이터요금제인 '올레 데이터 콤보'를 월 1만 2500원으로 할인해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 당시 유씨는 KT 고객센터와 지역지사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데이터 전용 단말기로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문의했고, 월 1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KT는 전산시스템에 유씨

가입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말기가 중고 제품이어서 할인된 요금으로 개통이 안된다"며 약속과 다르게 정상요금제로 가입을 시키고는 매달 2만2500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KT에 항의했지만, KT 측은 "전산처리 과정에서 요금제 안내를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고, 방송위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 공론' KT가 고작 8만원을 옥심내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2014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KT는 유씨에게 부당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방송위는 "KT는 유씨에게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개

월 12500원 할인 적용 안하고 부당 징수
방통위 재정신청 수용... "8만원 돌려줘라"

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판단하고, 유씨에게 최초 안내한 대로 약정기간인 24개월간 월 1만원 할인을 적용한 요금을 청구할 것을 KT에 지시했다. 또 지난 8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유씨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재정은 행정기관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재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번처럼 재정 안전이 전체회의에 올라 의결된 것은 최근 2~3년 내 처음이다. 재정 제도는 기존에도 6차례 진행될 정도로 이용 건수가 적은 편이다.

방송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재정 제도가 더욱 많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 "해외여행 데이터요금 주의하세요"

자동 로밍·앱 업데이트 차단... 무제한 로밍 서비스 안심

KT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고 고객들에게 과도한 데이터 요금 발생 위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T는 사전 조치로 과도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용패턴에 맞는 로밍서비스를 확인하고, 로밍요금제와 차단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KT는 데이터 로밍차단, 해외도착 알리미, 로밍안내방송 등을 3종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데이터 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다. 부가서비

스 가입 신청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레 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에 가입하면 하루 1만원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안심이다.

또 로밍 전문 고객센터와 공항 내 로밍센터에서는 고객의 연령, 여행목적, 휴대전화 이용패턴에 따른 맞춤형 로밍 상담을 지원하며 국가별 요금, 제휴 사업자 설정방법, 불편사항 발생시 조치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ENG, 이앤지 방수, 비드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010-3690-7790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